

[우리들의 담수 제주도 자생식물들]

나무에서 피는 연꽃 '목련'

우리나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목련의 자생지는 사실 제주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 목련은 ‘나무에서 피는 연꽃’이라는 뜻을 가진 식물로, 한라산은 국내에 유일한 목련의 자생지입니다. 이 지역의 최대목은 가슴높이 둘레 약 2.9m, 높이 15m,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,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자연림 계곡부에 집단으로 분포하고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.

목련의 꽃은 4월 중순부터 잎이 나기 전에 피는데, 지름 10cm 정도이고 꽃잎은 6~9개이며 긴 타원형으로 백색이지만 기부에는 연한 홍색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. 3개의 꽃받침조각은 선형으로 꽃잎보다 짧고 일찍 떨어지며 수술은 30~40개로 꽃밥과 수술대 뒷면은 적색을 띄고 있습니다. 열매는 5~7cm로 곧거나 구부러지고 종자는 타원형이며 외피가 적색입니다.

이러한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새하얀 목련은 백목련이며, 이는 중국에서 원산으로 도입된 식물입니다. 목련은 백목련과 달린 꽃의 아래쪽에 연한 붉은 빛이 돌고, 한 개의 어린잎이 달린다는 점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.



봄을 알리는 '세복수초'



출처: 국립생물자원관

제주에서만 자생하는 세복수초(*Adonis multiflora*)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. 늦은 겨울인 1월 중순부터 개화가 시작되며, 눈 속에서 꽃이 핀다고 하여 ‘얼음새꽃’ 또는 ‘설연화’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

세복수초는 여러해살이풀로 10~30cm 높이까지 자라 다른 복수초에 비해 3배 이상 키가 크며, 잎자루가 매우 짧고 꽃잎이 꽃받침보다 긴 모습을 보입니다. 일반 복수초보다 꽃이 필 때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진다는 특징을 지고 있어 ‘가늘 세(細)’를 붙여 세복수초라고 불린답니다.

꽃은 2~4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1개씩 노란색으로 피며, 지름은 3~4cm이고 별이 들 때에만 쟁반처럼 수평으로 활짝 벌어집니다. 꽃받침조각은 대개 5~6개로 흑갈색이며, 꽃잎보다 매우 짧고 끝이 둥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꽃잎은 10~30개이고 수술과 암술은 유사종에 비해 적게 달립니다. 열매는 마르고 한 개씩 들어 있으며, 열매가 익어도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 수과(瘦果)로 표면에 짧은 털이 있습니다.

천년의 숲에 숨겨진 '비자란'



출처: 국립생물자원관

비자란(*Thrixspermum japonicum*)은 비자나무와 같은 상록수에 붙어사는 착생식물입니다. 제주도 해발 250m~350m 남사면 계곡부의 습도가 높은 지역에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.

특징으로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는 주기 중간에서 길게 나와 있습니다. 줄기는 가늘고 길이 3~7cm이며, 묵은 엽초로 싸여 있습니다. 잎은 바소꼴로 길이 2~4cm, 폭 4~5cm 정도입니다. 또한 난초과에 속하는 부착(附着)란으로 오래된 나무에 붙어 자랍니다.

비자란의 꽃은 4~5월에 연한 황색으로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가는 꽃줄기에 2~3송이씩 달립니다. 포(苞)는 넓은 난형이고 길이는 3mm이며, 꽃은 긴 타원형으로 길이는 7~8mm 정도입니다. 꽃잎의 윗부분은 안쪽으로 굽어 있습니다.

제주지역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자생하는 비자란은 무분별한 남획, 산림이용, 기후변화로 인하여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.